

<p>There are many areas of doctrine and Scripture interpretation over which faithful, sincere believers may honestly differ. Tragically, there have always been Christians who insist on dividing with other Christians over peripheral, and sometimes trivial issues. As we come to Romans 14, Paul addresses a problem that has plagued the Church down through the ages and is still very much in evidence today, namely, Christians who disagree with each other and who doggedly, dogmatically try to change each other. The problem is an attitude that says, “God is clearly pleased with my beliefs and my lifestyle – but those Christians over the road are wrong! This one has the wrong view of spiritual gifts. That one drinks beer and wine. That one listens to heavy metal rock and so on.”</p>	<p>신실하고 진실된 믿는 이들에게, 교리와 성경 해석의 많은 부분들은 솔직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중요하지도 않고, 가끔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다른 크리스천들과 나누어지기를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로마서 14 장에서, 사도바울은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두드러지는 교회의 골치거리 문제인, 다시 말해, 서로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억세고, 독단적으로 서로를 변화시키기를 시도하는 크리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방식에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저너머 저 크리스천들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은사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맥주와 와인을 마십니다. 저 사람은 헤비메탈 등을 듣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p>
<p>In this chapter Paul confronts the issue of how much fellowship we can have with professing Christians who believe, live and behave in ways we do not approve of. This is the issue of legalism versus liberty. Placing these issues in the context of Paul’s letter to the Romans, it is clear that this entire section right through to verse 13 of chapter 15 is an extension of his commentary of Christian love that began in Romans 13.</p>	<p>이 장에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믿고, 살아가고 행동하기를 공언한 크리스천과 얼마만큼의 유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면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대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로마인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편지의 문맥 속에 배치하면, 15 장 13 절까지의 전체 부분이 로마서 13 장에서 시작된 크리스천의 사랑에 대한 그의 해석의 확장임이 명확해집니다.</p>
<p>As we begin Romans 14, we learn that love must be patient and tolerant of other people’s views, including the views of those who are less spiritually mature than ourselves. When the NIV begins in v. 1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a more accurate translation would be “Accept him who is weak in the faith”. Paul is not referring to people whose individual faith is weak, people who are troubled by doubts or questions. Rather he is talking about someone who is weak in the faith – that is, someone who does not have the maturity or experience in the Christian faith to adequately understand God’s truth. Until a believer reaches a level of mature knowledge of Jesus’ teaching, that believer is considered “weak in the faith”, even if he or she has a very strong and vibrant personal faith. Once that person becomes strong in the faith, he or she will understand Christian liberty and be set free.</p>	<p>로마서 14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보다 영적으로 덜 성숙한 이의 관점을 포함한 다른 이의 관점에 대해 관대함을 배웁니다. NIV 성경의 1 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더욱 정확하게는 “믿음 안에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개별적인 믿음이 연약한 이들, 의문과 궁금함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믿음 가운데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크리스천 믿음 안의 성숙함 또는 경험의 없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고 강렬한 개인적인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는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성숙한 지식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믿음 안에 연약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강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해할 것이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p>
<p>When we encounter a Christian who is weak in the faith, we should accept him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We do not reject or ignore him. We do not treat him as a second-class Christian. We do not get into a debate with him in order to set him straight. We simply accept him in Christian love. God has placed you in one family together. The first words exchanged between you and your brother or sister in Christ should not be words of dispute, but a recognition that you belong to one another in the body of Christ.</p>	<p>우리가 믿음 안에 연약한 크리스천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를 이등석 크리스천으로 대우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논쟁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그저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함께 한 가족으로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주고 받을 첫 말은 논쟁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에게 속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p>

<p>As we come to verse 2, Paul begins to define the specific areas of dispute and debate which were occurring in the Church in Rome. “One man’s faith allows him to eat everything, but another man, whose faith is weak, eats only vegetables”. The concern arose over a moral and spiritual issue arising from the Jewish character of the early church. The Jews observed certain restrictions regarding the eating of certain kinds of meat. According to the dietary laws found in Leviticus, Jews could not eat pork. Even beef and lamb had to be killed and prepared in very specific ways. So a Jewish Christian naturally had great emotional difficulty in eating meat. And so, in the Church in Rome, the weak Christian was saying, “We must not eat meat – it is wrong”, even though Christ had said that his people are free to eat any food (Mark 7: 14-23). On the other hand, a strong Christian – one who knew they were saved by the gospel, and therefore understood that there were areas in which they were free – was saying, “We’re free to eat meat!”</p>	<p>2 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분쟁과 논쟁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정의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초대 교회의 유대적 성향에서 발생되었던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려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종류의 고기를 먹는 특별한 제약을 준수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진 음식물 금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와 양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죽이고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 크리스천이 고기를 먹는 것에는 큰 정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떤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음을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막 7:14-23), 로마 교회에서, 연약한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음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인지했던, 그리하여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했던, 강한 크리스천은 “우리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p>
<p>It is interesting to compare this dispute in Romans 14 with the one described in 1 Corinthians 8. In that case the issue of eating meat was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meat had been offered to pagan idols before it was sold to the public. And so there was conflict between ex-idol worshippers and other believers over whether Christians could buy and eat meat left over after pagan temple services. In that situation, the “strong” were Christians who said, “There’s nothing wrong with eating the meat – idols aren’t real”. Thus the “strong” were probably mainly Jewish Christians, who had no background in idol worship. The “weak” would have been former idolaters(Gentiles), who had once been entrapped in pagan cults and felt that eating such meat was the equivalent of participating in idol worship. But here in Romans it appears that the roles are reversed. The “weak” are those who are following the Old Testament “clean/unclean” food laws and who feel polluted when unclean meats are eaten or other Old Testament regulations are broken. The “weak” here seem to be Jewish Christians.</p>	<p>로마서 14 장의 이 분쟁을 고린도전서 8 장에서 서술된 것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대중들에게 팔리기 전에 고기의 대부분이 이교도의 우상에게 제사되었던 사실에 의해 고기를 먹는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우상숭배자들과 다른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교도 제사 후에 남은 고기를 크리스천이 구매하여,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자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강한 자들”은 아마도 주로 우상숭배에 대한 배경이 없었던 유대 크리스천이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이교도 숭배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느꼈던 이전의 우상숭배자(이교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에서, 그 역할은 뒤바뀌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자들”은 구약의 “정결한/부정한” 음식 규정을 따르는 자들이며 부정한 고기를 먹었을 때 더럽혀진다고 느끼며, 또는 다른 구약의 규정들에 어긋난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들”은 유대 크리스천인 듯 합니다.</p>
<p>This helps us to see the broader principle beneath the cases. The “weak” are any Christians who tend to promote and regard non-essential cultural and ceremonial customs as being critical for Christian maturity and effectiveness. For example, the older generation in a particular church might feel superior to the younger folk who like contemporary music in their worship. They do not deny that the younger people are Christians, but they could claim that their</p>	<p>이는 우리가 이 상황 아래서 광범위한 원칙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고취하려는 경향이 있고, 불필요한 문화적, 의식적 풍습을 기독교적 성숙과 유효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임의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의 기성세대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현대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우월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천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단지 젊은이들의 음악이 그들 스스로를</p>

<p>music displeases and offends the Lord simply because it displeases and offends them. Thus they have taken an issue of taste, custom or culture and elevated it to an abiding trans-cultural mark of spiritual maturity. The principle Paul urges us to adopt is valid for all time and in an endless variety of situations. Whenever two believers find themselves on opposite sides of an issue that is not clearly addressed in Scripture, then Christian love must prevail. In our own culture, the issue may have to do with whether or not it is right for Christians to drink alcohol or whether Christians should adopt this or that position on baptism or eschatology.</p>	<p>불쾌하게 하고 언짢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음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언짢게 한다고 주장할 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호, 풍습, 또는 문화를 문제삼고, 그리고 이를 영적 성숙의 지속적인 문화 이식의 표시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도바울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원리는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믿는 자가 성경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서로가 반대의 입장에 있음을 알 때, 크리스천의 사랑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이러한 문제는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는 것이 옳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크리스천이 세례를 받아들이거나 종말론을 선택하든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Of course, some issues are not debatable at all – they are indisputable – because they are clearly addressed in the Bible. Whether or not it is permissible for Christians to drink beer or wine, it is always wrong to be drunk, because the Scriptures tell us so in no uncertain terms. It is always wrong to hold a doctrinal view that violates the Bible, such as a belief that the Bible is not the inspired Word of God or that Jesus was not born of a virgin or that he was not raised physically from the dead. But there are many areas that Scripture leaves open and unaddressed – areas that God deliberately leaves to individual discretion. He expects believers to thoughtfully consider the issue, weigh up the moral pros and cons, then act in accordance with their individual convictions.</p>	<p>물론, 어떤 문제들은 전혀 논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것이 크리스천에게 허용되던 그렇지 않던간에, 성경에 술에 취하는 것이 확실하게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이 고무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시지 않았다는 믿음, 또는 그가 죽음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다시 사시지 않았다는 믿음 등의 성경을 어기는 교리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각자의 재량에 맡기신, 열린 채로, 언급되지 않은 채 남겨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사려깊게 이 문제를 고려하고, 도덕적 장점과 단점을 가늠하고, 그래서 그들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p>
<p>It is clear that Paul considers Christians holding the broad, liberal view to be strong in the faith, while those with the narrow, strict view are regarded as weak in the faith. Those who do not understand Christian liberty are weak in the Christian faith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how truth delivers us from bondage. Those who are weak in the faith have a legalistic view of the faith. They see Christianity as a network of rules and regulations. Even though they may intellectually understand that salv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they still try to earn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by keeping a set of rules.</p>	<p>좁고 엄격한 관점을 지닌 이들이 믿음 안에서 연약하다고 간주되는 반면, 사도바울이 넓고 자유로운 관점을 지닌 크리스천을 믿음 안에서 강한 자로 고려함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진리가 구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기독교적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 가운데 약한 이들은 믿음의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규칙과 규정의 연결망으로 봅니다. 그들이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라고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일련의 법칙을 따름으로 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Every church has people who are weak in the faith. Paul makes it clear in v. 3 that those strong in the faith must not reject anyone who is struggling, who is still weak. There must not be any trace of contempt or disdain in our dealings with the weak. We have all seen this tendency among those who feel great Christian freedom in certain areas. They tend to regard those who are not yet free as second-class Christians, sometimes ridiculing them as being narrow-minded.</p>	<p>모든 교회에 믿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3 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직도 연약하고, 애쓰고 있는 그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대함에 절대로 어떤 멸시도, 업신 여김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기독교적 자유를 느끼는 자들 가운데에 이러한 기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이등석 크리스천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끔은 그들을 편협한 자로 조롱합니다.</p>

<p>Paul implies that any so-called “strong” Christians who look down upon the “weak” Christians are showing that they, too, are weak in the faith! At the same time, Paul makes it clear that those who are legalistic must not condemn those who are free. In other words, those who think that it is morally wrong to drink alcohol must not look down on those who feel free to do so. They must not say, “How can you be a Christian and drink alcohol?” The legalists ar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fact that many people in the world see Christianity as a religion of rules and regulations. Legalism – which Jesus continually battled throughout his earthly ministry – has tragically triumphed over grace in many evangelical churches.</p>	<p>사도바울은 “연약한” 크리스천을 얹잡아보는, 소위 “강한”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이들 또한 그들 스스로를 믿음 가운데 연약한 자로 보이고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바울은 율법적인 자들이 자유로운 자들을 책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를 자유롭게 여기는 자들을 얹잡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크리스천이며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규칙과 규정의 종교로 바라본다는 사실에 대해, 이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율법주의는 -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 사역동안 끊임없이 싸우셨던 -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은혜에 승리를 거뒀습니다.</p>
<p>The reason we must not judge the weak or condemn the strong is that it is not our responsibility to change the belief and behaviour of our brother or sister in Christ. As Paul says in v. 4, every believer is a servant of the Lord. A servant is accountable to his Master, not to you or me. We have no right to judge the Lord’s servant. The Lord chose him, and if the Lord’s servant needs to be changed in any way, it is up to the Lord to change him. Sometimes the reason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ake the positions they do is that they don’t adequately understand the truth. If that is so, then the solution is to teach the truth more plainly. As people hear it and understand it, they will become stronger in the faith. As people are exposed to the truth, they will change.</p>	<p>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며, 강한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형제 자매의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4 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은 주의 종입니다. 종은 그의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여러분 또는 저에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만일 하나님의 종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어야 한다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가끔씩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 자리를 취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더욱 분명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해한다면, 그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나타내질수록, 그들은 변화할 것입니다.</p>
<p>Christians may have differing views on many of these issues, but they have the same intention – to honour God with their conduct. God knows the heart – you and I do not. We are so quick to judge our fellow Christians and find fault with their choices – but if we actually knew the honest conviction that underlies those choices, we would be ashamed of our judgmental attitudes. We often think that we are the only people with genuine convictions but Paul says that we must be tolerant of the convictions of other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hatever we do, we do unto the Lord. Our convictions must be rooted in our desire to please God, and we should live by those convictions. As Paul says in v. 5b, “Each one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p>	<p>어쩌면 크리스천들은 많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려는 같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크리스천을 정죄하고, 그들의 선택의 잘못된 점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바탕을 이루는 정직한 신념을 알았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직 우리만이 진정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도바울은 우리는 다른 이의 신념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갈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신념대로 살아야 합니다. 5 절 후반부에서 사도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말합니다.</p>

<p>Don't just do what you do because of tradition, because you've always done it that way. Don't just do what you do because "it feels like the right thing to do". Search the Scriptures and justify your decisions on the basis of Scripture.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issue, your mind and your convictions may change – God may lead you to take a different view.</p>	<p>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러한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는 것을 그저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는 것을 그저 행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의 결정을 정당화시키십시오.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신념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관점을 취하도록 이끄실지 모릅니다.</p>
<p>Paul uses the example of honouring certain days to show that two opposite viewpoints can both be pleasing to God. One Christian may treat Sunday as “the Lord’s Day”, keeping that day holy in much the same way that the Jews kept the Sabbath. Another Christian may say, “To me, all days are alike. I don't feel that God wants me to set one day aside for any special purpose. I want to honour the Lord seven days a week, through holy living and godly service”. Neither of these two Christians should feel offended by the other. Each makes a choice from the deep conviction of his heart.</p>	<p>사도바울은 반대되는 두가지 관점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광된 특정한 날의 예제를 이용합니다. 한 크리스천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여기고, 그날을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방법과 가장 동일하게 성스럽게 지켰습니다. 다른 크리스천은 “나에게 있어 모든 날이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 날을 따로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성스러운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크리스천 모두 서로에 의해 언짢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그의 마음의 깊은 신념으로부터 선택합니다.</p>
<p>Our relationship to one another is more important than any issue of disagreement.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v.8). The fact that we belong to the Lord is even more important than whether we live or die. Since all of us as Christian believers belong to the Lord, we need to remember 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p>	<p>다른 이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의견 차이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8 절). 우리가 주께 속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거나 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 속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와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p>
<p>It is Christ alone who has the right to judge people, including you and me. It is a right he won upon the cross. And so when we judge or condemn other people, we are putting ourselves in the place of Christ. Hebrews 10: 12 tells us that after Jesus offered the sacrifice for our sins upon the cros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seat of judgment. And in 2 Timothy 4: 1, Paul says that Jesus, “will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He is the Lord of the living and the dead, and he is the only one who has a right to judge any human being. The strong Christians must not judge the weak Christians, nor the weak judge the strong. Each of us must individually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p>	<p>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다른 이를 심판할 권리를 가지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를 정죄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 장 12 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려진 후, 그가 심판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 장 1 절에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간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강한 크리스천은 연약한 크리스천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며, 연약한 자들 또한 강한 자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p>

This is true in both a present sense and a future sense. Every day, hour by hour, we are accountable to the Lord for our conduct – and especially for the way we treat each other and love each other. There is also a day coming when we shall give an account to the Lord and to him alone. Paul has this to say about that day in 1 Corinthians 4: 5: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til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men’s hearts.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his praise from God”. On that day, all the things we thought were buried in secret – including our true motives and intentions – will be exposed to the light. Then we must give an account to the Lord. Meanwhile, all believers are serving him,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do his will, learning and growing and changing, daily coming into a deep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ruth. Instead of judging one another, let’s love one another and encourage one another along that journey – a journey that takes us from weakness to a place of strength in the faith.

이는 현재와 미래에 모두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직고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4 장 5 절에서 그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때에, 우리의 진짜 동기와 의도를 포함한, 비밀스럽게 묻어두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빛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직고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를 예배하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따름에 고민하며,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며, 매일 진리를 이해함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대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를 연합함으로부터 믿음의 강한 곳으로 이끄는 이 여정을 따라 서로를 격려합시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